

전북, 글로벌 투자 무대에서 신산업 비전 제시



전북도는 지난 14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한국외국기업협회(FORCA) 회원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자치도>

도, 서울서 외국기업 투자설명회 주력산업 연계 50여개社 참여 이차전지·AI 등 잠재력 홍보

전북도가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에 속도를 낸다.

도는 지난 14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한국외국기업협회(FORCA) 회원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었는데 이날 행사에는 화학, 기계, 반도체 등 전북 주력산업과 연계된 50여 개 외국계 기업이 참석해 전북의 미래 신산업 성장 잠재력과 투자 환경에 대해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듀폰(첨단소재/미국), 헨켈(접착제/독일) 등 화학 분야를 비롯해 온세미(반도체/미국), AVL(자동차/오스트리아), RWE(에너지/독일) 등 첨단산업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했다. 전북에 이미 입주한 솔베이(자동차/벨기에)와 세플러(화학소재/독일)도 함께했다.

이날 김관영 지사는 포카 협회장이자 시엔스코 대표인 서영훈 대표, 히타치(에너지/스위스) 최석환 대표 등 주요 기업 대표들과의 면담을 통해 전북의 산업 및 투자 환경을 소개하고 투자를 요청했다.

설명회 이후에는 기업 대표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관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소통으로 전북 산업 발전 지원과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북도는 이번 설명회에서 기업 개별 면담과 전북 및 새만금 홍보영상, 프리젠테이션 등의 활동을 펼쳤다. 프리젠테이션에서는 이차전지, 바이오, 방위산업 등 도내 주력 미래 신산업의 추진 현황과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집중 추진 중인 피지컬 AI와 새만금 중심의 RE100 산단 조성 계획을 소개하며 참석 기업들의 관심을 끌었다.

민선8기 들어 시행 중인 공무원 1:1

기업 전담제, 친환경 노사정책 등 투자여건과 함께 타 시도 대비 우수한 보조금 지원제도, 특구를 활용한 세제 감면 등 지원 정책도 안내했다.

도는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설명회, 현장 방문 프로그램 등을 지속 추진하며 국내외 기업 유치에 힘을 기울인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은 이차전지, 피지컬 AI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전북이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는 전진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이원택, 새만금신항 ‘반쪽짜리’ 우려 “배후부지 국가재정 전환 절실”

2026년 2선석 우선개항 ‘코앞’ 민자 100% 지역 형평성 문제 경쟁력 확보 위해 수로 매립 필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새만금신항이 2026년 2선석 우선개항을 1년여를 앞두고 있으나 배후부지 재정전환이 확정되지 않아 부두만 있고 배후부지는 없는 반쪽짜리 개항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신항 26년 2선석 우선개항을 앞두고 배후부지 국가재정 전환에 대한 예산 확정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 새만금 배후부지 1-1단계 재정전환을 지속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해양수산부가 기재부와 논의만 하고 있을 뿐 재정전환에 대한 예산 지원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이원택 의원

현재 항만공사 없는 대부분의 신항만의 배후부지는 국가재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새만금신항의 배후부지만 민자 100%로 계획되어 지역 차별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26년 우선개항 시 부두만 있고, 배후부지는 없는 반쪽짜리 개항이 우려된다”며 “배후부지 재정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조제와 배후부지 사이 수로를 매립하고 배후부지를 확장하여 새만금신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배후부지 확장을 위해 해수부, 환경부, 기재부 등을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국어책임관 전문성 강화 쉬운 행정언어로 도민 소통 제고

국어책임관 역량강화 교육 진행 공문서·보도자료 기반 실무 교육 올바른 국어로 공공언어실질 개선

전북도는 1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내 14개 시군 국어책임관 및 국어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북특별자치도 국어책임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북특별자치도 국어책임관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높여, 도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행정언어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 국어책임관 제도와 역할 ▲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등 실무 중심의 맞춤형 강의로 구성됐다.

먼저 국어책임관 제도를 소개하고 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활동사례를 공유

하며 효과적인 국어책임관의 역할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어 실제 공문서와 보도자료 사례를 바탕으로 행정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어문 오류와 바른 표현법을 학습하며 실질적인 공공언어 개선 역량을 높였다.

이경영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과장은 “국어책임관은 도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국어책임관들이 공공언어 개선에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공공언어 개선과 올바른 국어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의회, 한·중·일 지방외교 새 장 열다

장쑤성 회의서 교류 확대 논의 재생에너지·디지털경제공동추진 산업·문화·생태 연계 협력 모색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15일 중국 장쑤성 연청시에서 열린 ‘장쑤성 인민대표대회와 한·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 참석, 동아시아 3국 지방의회 간 지속 가능한 교류와 실질적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주최한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 포럼’의 후속 행사로, 이번 원탁회의에는 대한민국 전북·서울·경기·충남, 일본 홋카이도·지바현, 중국 장쑤성 등 3국 지방의회 대표단이 참석했다.

문승우 의장은 기조발표에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나아가는 연대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경제는 실질적 성과로, 문화는 지속 가능한 교류로, 생태는 상호 책임으로 연결될 때 진정한 동아시아 공동체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또 “임법과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디지털경제, 재생에너지, 청년 인문교류를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명연 부의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은 지방 차원의 산업 연대에서 비롯된다”며 “전북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장쑤성의 전기차·배터리 산업, 일본의 첨단 기술력이 결합된다면 동아시아 친환경 에너지벨트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청년 창업가가 함께하는 실무형 경제협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표단은 원탁회의에 앞서 위대한그룹, SK신에너지, 한중문화거실 등을 방문해 산업 교류 가능성을 점검했으며 16일에는 두루미 보호구역, 사슴 보호구역, 황해산림공원 등을 방문해 생태·환경 협력 모델을 살필 예정이다.

문승우 의장은 “지난해 협력포럼이 지방의회 간 지속 가능한 지방외교 확대의 출발점이었다면, 이번 원탁회의는 한·중·일 지방의회가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믿고 구매하는 초특가

장수군 직영 쇼핑몰

장수몰 mall

장수군 직영 쇼핑몰

내 고향 장수군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장수군을 사랑하는 마음 '고향사랑기부제'로 전하세요!

장수사랑상품권 장수 한우 개떡돼지 세트 장수 사과 오미자 오미자주 등 20여개 품목

문의.장수군 행정지원과 063-350-2009, 2140

</

전주시, ‘2025 한복문화주간’ 마련

오는21일~26일까지

전라감영·한국전통문화전당서
한복문화축제 개최

전주시 한복문화축제 ‘2025 한복문화주간’이 개최된다.
이번 ‘2025 한복문화주간’은 ‘현대와 전

통이 공존하는 한복문화’ 주제로 마련된다.
더불어 전시·체험·공연·사회공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외국인 이 한복의 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2025 한복문화주간’ 축제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전라감영과 한국전

통문화전당 외 전주 구도심 일원에서 진행된다.

행사는 21일 ‘한복의 날’ 기념행사로 ‘비단夜(야)’를 시작으로 △전통놀이 △한복등(燈) 세리머니 △‘전주 한복랩(LAB)’ 전시 △한복의 멋과 가치 체험 △‘한복몰든 소리’ 공연 △‘한복, 다시입다’ 패션문화 캠페인 등이 이어진다.

올해는 세계인을 사로잡은 ‘케이팝 데몬헌터스’ 저승사자 콘셉트 복장으로 색다른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025 한복문화주간을 통해 시민들이 한복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마음 쟁김의 인문학, ‘제9회 전주시 인문주간’ 출발

오는 17일까지 5일간

총 30개 인문강좌 진행

전주시가 아중호수도서관에서 펼쳐진 음악과 인문학이 결합된 인문학 특강과 콘서트를 시작으로 5일간의 ‘제9회 전주시 인문주간’ 대장정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 14일 아중호수도서관에서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감과 치유의 인문학’을 주제로 한 ‘제9회 전주시 인문주간’의 개막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방수미 소리꾼이 강사로 초청돼 ‘K-판과 K-팝으로 만나는 인생 이야기’를 주제로 판소리의 깊은 서사와 K-pop의 대중적 감각을 재해석한 인문학 특강을 펼쳤다.

특강 이후 이어진 인문콘서트에서는 인문밴드 레이드 참여해 대중음악과 판소리를 결합한 새로운 인문학을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17일까



전주시가 아중호수도서관에서 펼쳐진 음악과 인문학이 결합된 인문학 특강과 콘서트를 시작으로 5일간의 ‘제9회 전주시 인문주간’ 대장정에 돌입했다.

지 5일 동안 이어지는 올해 인문주간에서는 인후생활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 ‘뮤지컬로 만나는 치유인문학’을 비롯해 전주지역 작은도서관과 동네책방 등에

서 30개의 인문학 강좌 및 세미나로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인문주간 둘째 날인 15일에는 오후 7시부터 ‘나의 원발’의 작가인 김미옥

평론가와 박지음 소설가, 김승일 시인, 허서찬·강윤미 작가 등 6인의 작가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인 ‘실재 인문학 여섯 작가의 인생분투기’를 주제로 한 기획인문강좌가 전주시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기획 강좌는 단순한 강연이 아니라, 공감과 위로, 작가와 독자의 대화, 낭독과 강연이 어우러진 무대로 꾸며져 인문주간 주제인 치유와 공감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전주시 인문주간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평생학습관 누리집(e.jeonju.go.kr)에 확인할 수 있다.

김진숙 전주시 평생학습과장은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로 각자도생의 시대가 되었지만, 이번 인문주간을 통해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하며 다시 이웃의 의미를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의회, ‘日가나자와시의회’에 전주소개도서 전달

자매결연 도시 가나자와 방문
‘우미미라이 도서관’에 기증
20년 넘게 교류 이어져

전주시의회는 지난 14일 일본 가나자와시 우미미라이 도서관에서 자매도시 교류 사업 도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양 도시의 오랜 우정을 바탕으로 문화·교육 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시민 간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시의회 대표단은 이날 전주지역을



소개하는 역사·문화 도서와 관광 홍보자료 등을 전달했다.

전주시의회와 가나자와시의회는 지난 2004년 우호협력교류 협정 체결 이후 20년 넘게 양국을 오가며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남관우 의장은 “도시는 문화로 이어지고, 책은 그 문화를 가장 깊이 있게 이해하는 다리”라며 “이번 도서 교류가 양 도시 시민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보건소, 생물테러 초동대응 모의훈련 실시

생물테러 대응 역량 강화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15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역량 강화를 위한 소규모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생물테러 대비 관계기관 간 공조 체계를 점검하고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해 2년마다 진행되는 정기훈련으로, 전주시보건소와 전북특별자치도, 도 보건환경연구원,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훈련은 △생물테러 감염병의 이해 및 초동 조치 교육 △개인보호구

교육 및 책·타일의 실습 △다중탐지키트 검사 및 검체 이송훈련 등 실제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생물테러 감염병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염병(△탄저 △페스트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으로, 극미량의 병원체로도 감염이 가능하다. 특히 은닉·살포가 쉽고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어 상시 대비·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정혜민 기자

완주-전주 통합주민투표 앞두고 출근길 통합 캠페인 전개

15일 완주-전주 접경지 4곳서 진행
시민사회의 관심 촉구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투표 권고 시기가 임박한 가운데 전주시가 민간단체와 함께 출근길 통합 캠페인에 나섰다.

전주시와 완주전주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이재갑)는 통합 주민투표를 앞두고 15일 전주와 완주 접경지역 주요 교차로에서 ‘완주·전주 통합 출근길 캠페인’을 전개했다.

시는 호남제일문 사거리와 옛 송천역 사거리, 차량등록과 사거리, 호성네거리 등 통근 차량이 많은 교통 거점 4곳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날 캠페인에서 완주군 민으로 구성된 민간단체인 완주전주통합추진위원회 회원 등 100여 명과 함께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에게 통합의 효과와 비전을 홍보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완주와 전주가 행정구역을 넘어 경제·생활권으로 이미 하나의 도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또, 행정구역 통합이 대광법 개정 등 지

역발전의 전환점이 될 기회를 더 잘 살리고, 통합시가 전북권의 성장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 집중했다.

시는 앞으로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통

합 주민투표 권고 전까지 꾸준한 시민사회에 통합의 필요성과 가치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월과 8월에는 전주 지역 민간단체 주도로 총 14회에 걸쳐 1900여 명이 참여한 1차 통합 캠페인이 전개된 바 있다.

완주전주통합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통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알리고자 시민과 함께하는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통합은 행정 효율화를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이자 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완주와 전주가 함께 하면 전북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 캠페인 이 시민들이 통합의 필요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봐주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진행

강화된 안전관리 제도 이해 높여

전주시는 15일 시청 강당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과 중간관리자, 담당 공무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법정 의무 사항 등 강화된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강은실 광주지방법원 용도동청 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장이 강사로 나서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관련 법령 이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보 의무 △중대산업재해 주요 사례 및 처벌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교육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 관리의무가 더욱 강화된 만큼, 현장의 관리자들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완주소방서, 용봉초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

‘생명 지키는 어린이’ 양성 목적

완주소방서(서장 이주상)는 15일 용봉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처능력을 길러 ‘생명을 지키는 어린이’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중심으로 실습 위주로 운영됐다.

특히 교육 중에는 실제 초등학생이

평소 배운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잃은 어머니를 구한 사례를 소개하며, 학생들에게 “여러분의 손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큰 공감과 집중을 이끌었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심폐소생술은 누구나 배워두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새만금개발청, ‘제13회 국제첨단소재기술대전’ 참가

글로벌 첨단산업 허브육성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B홀)에서 개최하는 제13회 국제첨단소재기술대전에 참가한다.

이번 국제첨단소재기술대전에서 새만금개발청은 개청 이후 누적 16.4조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알리고,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각종 인센티브를 홍보할 예정이다.

또 투자 관심 기업과의 상담을 통해 신규 투자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박람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가 ‘원팀’으로 참여해 새만금 공동관을 운영하는 등 첨단 전략산

업 기업 유치를 위해 관계기관과 힘을 모았다.

새만금국가산단은 지난 2023년 6월 투자진흥지구 지정, 같은 해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관련 기업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차전지 관련 기업유치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등 ‘이차전지 클러스

터’로 자리매김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정부 기조에 맞춰 새만금에 RE100 산업단지 기반을 조성하고 이차전지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업을 유치해 에너지 대전환을 실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수요에 맞춰 제2호 새만금 투자 진흥지구도 추가 지정 등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 친환경 트랙터, 우즈베키스탄 첫 수출

테크노파크 ODA 성과 올해 36대 수출·농기계 산업 진출 영역 넓혀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가 추진 중인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이 실질적 수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ODA사업에 참여기업으로 함께한 TYM(대표 김희용, 김도훈)이 CNG(압축천연가스) 트랙터를 우즈베키스탄 농기계 클러스터에 수출하며, 전북 농기계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영역을 한층 넓혔다.

이번 수출은 올해 총 36대(약 22억원 규모)의 트랙터를 1차로 공급하는 것으로, 우즈베키스탄 현지 농기계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실증 및 보급이 추진된다. 향후, 14대(약 8억원 규모)의 추가 수출이 예정돼 있으며, 전체 수출 규모는 총 50대(약 30억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협력은 현지 인증, 기술검증, 보급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친환경(CNG) 농기계 보급의 국제협력 모델을 완성한 것으로, 전북 농기계 기술이 해외 현장에 본격 적용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전북테크노파크는 ODA사업 외에도 도내 농기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농건설계기 수출연계형 글로벌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수출 맞춤형 시제품 제작, 설계·해석, 지식재산권 확보, 해외 마케팅, 전시회 참가, 국외 조달시장 진출, A/S 애로 해결 등 기업별 맞춤형 수출 전략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또 해외 바이어 매칭, 통역 지원 등 실질적 해외시장 개척 프로그램을 병행해 ODA사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은 “전북

테크노파크가 추진해온 ODA 협력사업이 실제 수출성으로 이어진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며 “향후에도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지 네트워크, 기술검증, 마케팅 등 실질적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이번 우즈베키스탄 수출 성과를 계기로 친환경 농기계의 글로벌 보급 및 민관 협력형 ODA 체계 강화를 통해, 도내 기업의 지속 가능한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카작 국립농업대, 인적 교류 확대 교육·연구 협력 강화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카자흐스탄 최초의 농업특성화 대학인 카작 국립농업대학교(Kazakh National Agrarian University)와 국제 교육·연구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14일 공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총장이 지난 10월 7일 추석 연휴 기간 중앙아시아 주요 대학을 방문해 국제협력 기반을 확장한 데 따른 신속한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시 양 총장은 카작 국립농업대학교를 방문해 교환학생 프로그램 강화, 공동 연구 확대, 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했고, 일주일 만에 협약 체결로 논의를 공식화했다.

양 대학은 협약에 따라 교수와 연구자 등 전문가 교류를 활성화하고, 학술 공동연구는 물론 교육과 연구를 연계한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원 단계에서 연구 인턴십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해외 연구기관과 산업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협력 분야는 농업과 생물자원, 수의학 등 양 대학의 공동 연구 기반을 토대로 공학기술, 자연과학, 수학·통계, 사회과학, 디지털 기술 등으로 확대된다.

양오봉 총장은 “카자흐스탄은 농업과 에너지, 생명자원 분야에서 전략적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국가”라며 “양 대학이 교육과 연구 협력을 넘어 산업과 기술혁신을 함께 이어나간다면 미래까지 창출형 국제협력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도, 푸드테크 대체식품 글로벌 협력 ‘가속화’

대체단백질 기관 GFI 기술·투자 협력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식물기반 대체식품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협력 강화에 본격 나섰다.

전북도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WFT) 2025 컨퍼런스’에서 식물기반 대체식품 세션으로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네트워크 데이’를 주관했다.

이 행사에는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해 식물기반 대체식품 산업의 기술·시장 동향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행사에서는 △달라이트푸드(식물성 대체단백질) △위미트(버섯치킨) △메타텍스처(식물성 계란) 등 혁신기업의 기술 발표가 이어졌으며, 서울대 최영진 교수를 좌장으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골든에이지파트너스 관계자 등이 참여한 패널토론을 통해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 간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전북도는 이번 행사 기간 중 세계적 대체단백질 연구기관인 굿푸드인스티튜트(GFI)와 별도 미팅을 갖고 글로벌 연구·투자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GFI는 미국 본부를 비롯해 인도, 이스라엘, 브라질, 유럽, 아시아태평양

(APAC) 등 6개 지역에 지부를 둔 비영리 싱크탱크로, 식물성 고기·세포배양육·발효단백질 등 대체단백질 기술과 정책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 기관이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계획과 글로벌 기술 협력 구상을 공유하며, GFI와의 공동연구, 투자정보 교류, 도내 기업 해외진출 지원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전북도는 2023년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출범으로 산·학·연·관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정기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총사업비 105억 원 규모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2026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이며, 대체식품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대·전주대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 등과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국제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정도진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전북은 푸드테크 대체식품 산업의 중심지로서 제도·연구·산업 기반을 갖춰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협력을 강화해 기술력 증진과 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도, AI·홀로그램 기업 중동 진출 교두보 마련

NIPA UAE IT지원센터와 협력의향서 체결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중동 최대 ICT 산업 전시회 ‘GITEX Global 2025’에서 UAE IT지원센터와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UAE IT지원센터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두바이 현지에 운영 중인 ICT 기업 지원 거점으로, 국내 기업의 중동 진출을 위한 사무공간, 시장 컨설팅, 네트워킹, 테스트베드 연계 등 실질적 지원 기능을 갖춘 기관이다.

협력 의향서에는 △현지 사무공간 제공 △중동시장 진출 컨설팅 △수출 마케팅 지원 △투자자·바이어 네트워크 연계 △현지 테스트베드·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기술검증·현지화 지원 등 협력 방안이 담겼다.

체결식에는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과 윤준배 UAE IT지원센터장, 최대규 전북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 AI·홀로그램 기업의 중동시장에 진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

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번 협력 의향서와 함께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GITEX Global 2025’에도 참가해 AI·홀로그램 공동관을 운영하며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했다.

‘GITEX Global 2025’는 170개국 6,500여 개 기업, 17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중동·아프리카 최대 ICT 박람회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동판 CES’로 불린다.

특히 홀로그램, 마이크로엑스알, 훈아티스 등 총 11개사가 참여한 ‘K-홀로그램 공동관’에서는 양방향 풀컬러 HOE 스크린, 홀로그램 현미경 등 첨단 기술 데모 시연을 진행해 해외 바이어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공동관에서는 ㈜에코팜과 ㈜다운정보기술이 참여해 담라닝 기반 딸기 병해 진단 솔루션과 인공지능 활용 노지 스마트팜 관수서비스 시스템을 선보였다.

윤준배 NIPA UAE IT지원센터장은 “이번 전북자치도와 협력 의향서 체결은 UAE IT지원센터가 지역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UAE IT지원센터는 현지 인프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중동 최대 ICT 산업 전시회 ‘GITEX Global 2025’에서 UAE IT지원센터와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라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전북의 유망한 ICT기업의 중동 시장 진출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글로벌 진출 지원은 단순한 전시 참여를 넘어, 현지 지원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내 기업들의 중동시장 진출과 장기 성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내 기업들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사업(정부 예타 면제), 홀로테크 허브 구축, 새만금 RE100 기반 글로벌 전지산업 단지 조성 전략 등을 연계해, AI·홀로그램-에너지-신소재 융합형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정소민 기자



경진원, K-바이오헬스 해외 투자유치 전략 모색

도내 기업 해외 진출 적극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웨스턴 서울 파르나스에서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해외진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바이오헬스 창업기업 20개사를 비롯해 투자기관,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행사는 △해외 투자유치 및 미국시장 분석 △미국 규제 및 인허가 프로세스 이해 등 두 개 세션으로 구성돼,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초기 바이오 기업의 현실적 고민과 실행 전략을 다뤘다.

KB인베스트먼트 김일한 이사과 큐제네틱스 김지완 전무가 강연자로 참여해, 글로벌 바이오 투자 동향과 미국시장 진출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인들을 분석하고, 미국 FDA 인허가 절차 및 바이오 제품 시장 진입 전략을 심도 있게 소개했다.

윤여봉 원장은 “경진원은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도내 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과 실질적인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 기술·성과 공유

지능화 혁신기술 한자리 산학연관 협력 기반 강화

전북테크노파크 부설 전북디지털융합센터는 15일 전주시 그랜드힐스틴 호텔에서 ‘2025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 기술 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익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가 주관해 지역의 지능화 기술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산학연관 협력 기반

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전북RICE지능화혁신연구센터의 추진경과를 비롯해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지원사업, 그리고 전북 피지컬AI(Physical AI) 실증(PoC) 사업 추진 방향이 소개됐다.

특히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피지컬 AI 실증(PoC)사업은 국가 전략산업으로 추진되는 피지컬AI 분야 최초의 실증사업으로, 전북이 확보한 국가 예타 면제 사업(피지컬AI 생태계 조성 사업)과 함께 전북이 피지컬AI 연구·산업화 거점 지역으로서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지역 지능화 기술생태계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산학 프로젝트별 기술개발 성과 보고 세션에서는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 교수진이 진행 중인 지역산업 현장 연계 센서, 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기술개발 과제 10여 개가 발표됐다.

발표된 주요 과제는 △온디바이스 환경센서 기반 대기질 모니터링 △블록체인·DID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품질관리 △스마트팜·스마트팩토리를 위한 영상 전송 시스템 △담라닝 기반 작물생장 모니터링 등으로, 지역대학의 연구 성과를 산업 현장에 접목한 실증형 지능화 기술 사례로 주목받았

다.

이들 과제는 산학연 협력의 성과가 지능화 기술이 지역 산업으로 확산되는 선도적 모델로 평가받았으며, 향후 기술사업화 및 산업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지역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이 함께 추진 중인 지능화 기술혁신 성과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과 AI 융합 등 지능화 기술을 통한 지역산업 고도화와 혁신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자현미경으로 본 원예식물의 비밀’ 사진전

전주수목원서 26일까지 개최

“허브잎을 만지면 손끝에 묻어나는 향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빨간 장미잎은 왜 각도에 따라 색이 다르지?” 평소 원예식물을 접하며 품었던 궁금증을 풀어줄 특별한 사진전이 열린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오늘부터 26일까지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월요일 휴원)에서 ‘원예식물 주사전자현미경(SEM) 사진전’을 연다.

이번 사진전은 원예식물의 섬세한 구조와 아름다움을 통해 일반인들이 식물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소재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연구 대상인 라벤다, 로즈마리, 장미, 복숭아 등 20여 종 원예식물의 잎과 열매다.

주사전자현미경은 사물을 최대 10만 배까지 확대해 볼 수 있는 전문 장비로, 연구진은 전자현미경 활용을 위해 원예 식물 표면을 금으로 코팅, 전기가 잘 통하도록 한 뒤 작업을 진행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기초기반과 이영란 과장은 “과학적 분석법을 더한 이번 전시는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원예식물의 숨은 구조와 비밀을 더 흥미롭게 감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특히, 미래 세대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아중초, 전북 최초 IB 월드스쿨 공식 인증

수업·평가 혁신 현장 정착 기반 마련 학생 성장 가시화

전북 최초 IB 월드스쿨이 탄생했다. 1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주 아중초등학교(교장 김태유)가 지난 10월 13일 국제바칼로레아(IB) 본부(IBO)로부터 초등학교 프로그램(PYP) IB 월드스쿨(공식 인증학교)로 최종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주아중초의 이번 성과는 2024년 7월 23일 IB 후보학교로 지정된 이후 약 1년 3개월 동안 학교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치밀한 준비와 실천을 거쳐 얻어낸 값진 결과이자, 전북교육청이 역점 추진한 전북형 수업·평가 혁신을 본격화할 초석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월드스쿨 인증으로 교실에

서의 탐구 중심 수업과 성장 중심 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 전북교육청이 추진해온 IB 도입·확산 정책이 ‘현장 실행 단계’로 전환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IB 월드스쿨 인증교는 IBO의 정기 컨설팅과 국제 표준 자료를 토대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정기적 자체평가 및 외부 점검을 통해 수업·평가 품질을 관리한다. 더불어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강화를 통한 수업·평가의 질 제고와 학생 성장의 가시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MYP(중학교 과정)와 DP(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월드스쿨이 연차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관심-후보-인증 단계 전주기 맞춤형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학교 여건에 따른 컨설팅, 교원 전문성 강화(IBE·과정별 워크숍·현장 코칭), 평가 혁신 모델 보급(루브릭·포트폴리오·피드백),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 내실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전주아중초의 월드스쿨 인증은 전북의 교실에서 IB가 공식적으로 실천되는 출발점이자, 수업·평가 혁신을 본격화할 초석”이라며 “PYP를 넘어 MYP와 DP까지 연속성 있는 확산이 이뤄지도록 현장을 세밀하게

/최성민 기자

‘전북에듀페이’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지역경제 활성화 장학금 지원 등 상생 효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전북에듀페이’ 지원사업이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추진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전국에서 총 42건이 접수된 가운데 ‘전북에듀페이’는 장려등급에 선정, 업무담당자인 학교안전과 김효선 주무관이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이 체감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직문화를 혁신하고, 창의적인 성과를 창출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대회로 2019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하고 있다.

‘전북에듀페이’ 지원사업은 도내 모든 학생과 학업 중단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2023년도부터 추진됐다.

그동안 전북에듀페이는 교육비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돼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부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했다는 호평을 받아 왔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학생 장학금 지원 등 상생 효과로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명실상부한 전북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수상



은 전북에듀페이 지원사업의 정책적 효과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실천 노력을 높게 평가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도민이 체

/최성민 기자



전주대, 임실N치즈축제서 ‘J-커뮤니티캠퍼스’ 홍보

평생학습 가치 확산

전주대학교(총장 직무대행 권수태) RISE사업단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린 ‘2025 임실N치즈축제’에 참여해 ‘J-커뮤니티캠퍼스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지역민과 함께 평생학습의 가치를 확산했다.

이번 행사는 RISE 사업의 핵심 추진 분야 중 하나인 ‘평생교육 가치 확산 J-커뮤니티캠퍼스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이 지역과 상생하며 주민들이 손쉽게 평생학습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축제에서는 △J-커뮤니티캠퍼스의 취지 및 주요 프로그램 소개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홍보 등을 통해 대학과 지역 간 상생 및 평생학습의 가치를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또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기념 사진

을 인화 이벤트를 함께 운영해 방문객과 지역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전주대학교 RISE사업단 한동욱 단장은 “J-커뮤니티캠퍼스는 대학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거점이자, 누구나 배움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축제 및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교육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고, 전북형 학습공동체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J-커뮤니티캠퍼스 구축 사업은 전주대학교 RISE사업단이 임실군 등 지역 지자체와 협력해 추진하는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성인·재직자 대상 비학위 교육과정과 지역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혁신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최성민 기자

6급 장기교육과정 현업적용도 ‘최고 수준’

전북도교육청교육연구 평가 결과 99.86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은 ‘6급 핵심인재 양성 7기’ 과정의 현업적용도 평가 결과 평균 99.86점의 높은 점수를 받아 교육생들로부터 최고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6급 장기교육과정은 공직자로서의 성찰 및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개인의 성장과 중간관리자로서의 역량 함양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인식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보고서 작성 역량, AI 활용 능

력, 그리고 소통 및 관계 역량 등의 학습 내용이 현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평가돼 교육 성과가 뚜렷함을 입증했다.

교육과정에 대한 제언으로는 840시간의 교육 내용에 대한 지식의 내재화와 심리적 재충전을 위한 자기개발 촉진 시간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

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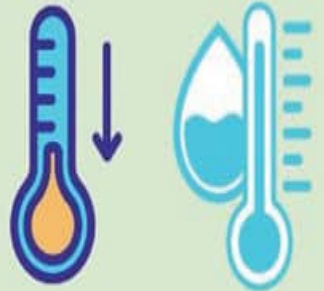
민완성 원장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생들의 제언을 반영해 차기 6급 장기교육과정의 교육효과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실무과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환절기 감기예방법

일교차가 큰 환절기일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감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내온도와 습도 적절히유지
온도 20~22℃, 습도 50~60%



외출 후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30초이상 손 씻기



채소와 과일 충분히 섭취하기



따뜻한 물 충분히 마시기



익산시, 어린이 요리체험 건강한 식습관 형성 기대

익산시는 15일 어린이건강체험관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요리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달지 않아도 맛있는 영양간식 만들기’를 주제로, 모현동·송학동·오산면에 위치한 4개 어린이집·유치원 6~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체험 내용은 ‘시시게밥(꼬치구이) 요리실습’으로, 아이들이 직접 꼬치에 재료를 꿴고 굽는 과정을 통해 손끝 감각과 창의력을 키우는 동시에 달지 않아도 맛있고 영양가 높은 간식의 중요성을 배우는 데 중점을 뒀다.

전문 강사의 지도로 안전한 환경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은 식재료의 맛과 영양, 조리법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아이들의 흥미를 높였다. 또한 아이들이 스스로 만든 간식을 함께 나누며 성취감과 자립심을 기를 수 있는 체험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진우 보건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식습관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 체험형 건강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어린이집·유관기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아이들을 학대의 그림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정읍을 중심으로 서남권 일대에 더욱 강화되고 있다.

정읍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조자영)은 최근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해 교사, 학부모 등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은 아동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읍·김제·고창·부안 등 서남권 4개 시·군의 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는 물론, 시니어클럽의 아동복지 관련 종사자까지 교육대상을 넓혀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주력했다.

교육 내용은 아동학대의 유형과 징후를 식별하는 방법부터 실질적인 예방·대응 방안까지 심도 있게 다뤘었다.

조자영 관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지역 사회의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민주적인 양육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월명동행정복지센터 헬스케어 기기 확대 조성

군산시 월명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영효)는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건강힐링존’에 다양한 헬스케어 기기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통해 선정됐으며, 작년에 안마의자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는 혈압측정기와 인바디 등을 추가로 마련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1층에 마련돼 접근성이 편리하며, 혈압측정기와 인바디를 통한 혈압관리·체성분 분석·근골격계 건강 점검 등 일상적인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월명동은 ‘건강힐링존’ 주민들의 체계적인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효 월명동장은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인화동, 청년들 열기로 ‘들썩’

18~19일 남부시장서 숨숨 페스티벌 개최 청년창업 활성화 도모

익산시 인화동이 청년창업과 지역 상생을 잇는 축제의 장으로 변신한다.

15일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18~19일 인화동 남부시장에서 ‘스타트업(STARTUP) 인화 숨숨 페스티벌(FESTIVAL)’이 열린다.

이번 축제는 고향올래(로컬벤처)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청년창업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대를 목표로 한다. 이틀간 청년(예비)창업자와 시민, 관광객, 지역 상권이 어우러지는 지역 상생형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특히 18일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청년창업자들이 함께하는 ‘청년창업 토크콘서트’도 열린다. 토크콘서트에서는 창업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익산 청년창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이 오갈 예정이다.

축제 기간 전국 청년창업자들이 제작

한 상품을 선보이는 ‘플리마켓’이 진행된다. 또 삼성물산 임직원과 전국 청년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청년팔도상회’도 열려 다양한 청년창업 아이템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양조장을 운영하는 전국 청년창업가들이 참여해 자신들의 제품을 소개하고, 시장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준비한 안주 부스에서는 풍성한 먹거리도 제공된다. 이 밖에도 창업 유관기관 홍보부스와 상담존이 마련돼 실질적인 창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현장에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게임 부스와 익산의 옛모습을 재현한 사진촬영 장소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도 준비돼 축제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올래 사업 로컬벤처 분야에 선정됐다.

시는 인화동을 거점으로 청년들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는 12월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시



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겨울 축제를 준비해 연말 도시에 활기를 더할 계획이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축제는 전국의 청년들에게 창업 지원을 제공하고, 생활인구 증대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상생의 장이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익산에서 꿈을 실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새만금항 신항 관할구역 기준 논의

관할구역 지정 공법적 쟁점 포럼 성료

한국공법학회, 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새만금항 원포트 지정에 따른 새만금항 신항 관할구역 지정의 공법적 쟁점’ 포럼이 지난 13일~14일 이틀간 군산대학교에서 열렸다.

포럼은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이 원포트 항만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관할구역 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일관된 법적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이재훈 교수(한국외대)는 “항만의 지자체 귀속은 실제 행정력 투입과 기능적 연계성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김재선 교수(동국대)는 해양관할구역 확정법(안)의 내용을 분석하며 “현재 상정된 법안은 매립지 관할 결정의 기존 판례 기준보다 주민들의 생활 여건 및 이해관계와 같은 현실적 요소를 폭넓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전문가들이 현행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매립 목적 및 사업효과, 행정적 투입 실적, 주민 생활권 및 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명확한 법률 기준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둘째 날인 14일에는 참석자들이 새만금항 신항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개

발 현황과 주변 지형, 항만 연계 체계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계 전문가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의 밀접한 기능적 연계성, 두리도와 일체화된 지형적 특성, 그간 군산시가 수행해온 항만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신항 인근 해역에서 생업을 이어온 군산시 어민들의 생활권 등 그동안 군산시가 중분위 및 대법원에 제시해온 논리의 실체를 직접 확인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앞으로도 전문가들과 협력해 합리적 기준에 기반한 관할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새만금 해양가점도시 군산으로 발돋움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첨단 기술 활용 시민 생활안전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 선정 국비 7억 확보

익산시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시민의 일상 속 안전을 지키는 스마트 도시 조성에 나선다.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선정돼 국비 7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국비 포함 1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이동약자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생활안전 서비스 구축’을 추진한

다.

‘IoT 기반 생활안전 서비스 구축’은 △이동약자 및 농기계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관리 서비스 △안심귀갓길 스마트 보안등 서비스 등 첨단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동약자 및 농기계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관리 서비스’는 전동보장구와 농기계용 위치정보시스템(GPS)과 자이로 센서가 내장된 LoRa(Long Range, 장거리 통신) IoT 장비를 부착해 쓰러짐 등 사고가 발생하면 내용과 위치 정보를 담은 알림문자를 즉시 보호자에게 보낸다.

아울러 익산시 CCTV통합관제센터에

서는 119 등 관계기관과 통합플랫폼을 통해 사고내용을 공유해 신속한 조치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안심귀갓길 스마트 보안등 서비스’는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제약이 있는 골목길 벽에 IoT 장비가 내장된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IoT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으로 고장 등 이상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안전한 귀갓길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이뿐만 아니라 시는 IoT 장비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사고 우려 지역의 환경 개선과 안전 대책 확보 등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 구절초 꽃축제 ‘안전 이상 무’

정부·지자체 합동 위험 요소 차단 총력

가을 대표 축제인 ‘정읍 구절초 꽃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안전 돌보기’를 들었다.

정읍시는 축제 개막에 앞서 행정안전부·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강도 높은 합동 안전점검을 벌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점검에는 행안부와 전북도, 정읍시 재난안전과·보건소 등 관계자 7명이 참여했다. 점검반은 이틀에 걸쳐

행사장 주요 동선과 무대시설은 물론, 전기·가스·소방·보건 등 분야별 안전관리 현황을 세밀하게 살폈다. 특히 첫날 현장에서 발견된 미비점은 즉시 시정 조치했으며, 이튿날에는 해당 사항의 보완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하루 최대 1만 5000명 이상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점검의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이번 합동점검은 경찰, 소방 등 각 분야 전문가관들이 사전에 요구했던 안전 대책들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됐는지 최종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점검단은 승강기가 요청한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구축 현

황 △소방서 의견을 반영한 ‘소화기 외부 노출 설치’ 여부 △전기 단선·합선 사고를 막기 위한 ‘일일 점검 계획’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한 ‘주차·우회·유도 인력 배치 계획’ △승강기상황에 대비한 ‘구급차 배치 계획’ 등을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하며 다중 안전망을 갖췄다.

시 관계자는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사전 위험요소를 꼼꼼히 살피는 계기가 됐다”며 “축제 기간 방문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전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사고 없는 축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 청년들 민간위탁 운영 수탁기관 공모

30일까지서류접수

진된다.

군산시가 오는 30일까지 ‘군산시 청년뜰(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이하 ‘청년뜰’)을 운영할 민간위탁 운영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최근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법인이나 단체로, 청년·창업 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6개월 이상 청년(만 18~39세) 또는 창업 관련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기관이다.

이번 공모는 청년과 창업 지원의 거점 공간인 ‘청년뜰’을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

서유 접수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서류심사 후 11월 중 개최 예정인 제안서 평가에서 정량·정성 평가를 거친다. 군산시는 결과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협상 적격자를 선정하고, 최종 협상 및 협약 체결을 거쳐 위탁 운영기관을 확정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청년뜰은 지역 청년이 성장하고 창업 역량을 키워나가는 핵심 거점 공간”이라며 “청년층의 수요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이러한 흐름을 민첩하게 반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관이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교육발전특구 원탁회의 열어

교육 발전 정책 제안의 장

익산시가 지역 교육 발전·혁신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듣는 정책 제안의 장을 마련했다.

시는 15일 익산교육지원청·교육공동체지원센터·원광보건대 라이즈사업단과 함께 원광보건대학교 WM관에서 ‘교육발전특구 100인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방과 후 체험 프로그램’,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육 과제’ 등 10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익산시 교육 발전 방안과 교육발전특구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교육 자원과

기반을 활용해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교육부가 3년간 시범적으로 지정한 지역이다. 익산시는 2024년 선정됐으며, 2026년까지 총 2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6개 세부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이전 원탁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교육환경 개선 사업 △100원 에듀버스 △지역인재전형 확대 △대학 연계 자기주도 학습 캠프 △생애전주기 1인 1개년 교육 등을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시는 교육발전특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올해 마지막 ‘사랑의 헌혈’ 시민·공직자 동참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따뜻한 나눔의 행렬이 15일 정읍시청 광장에서 이어졌다.

정읍시는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혈액원과 함께 올해 마지막 ‘사랑의 헌혈’ 행사를 열고, 시민과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했다.

시는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 매분기 정기적으로 헌혈 행사를 마련하며 생명 나눔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지난 7월 3분기 행사에서도 수십여 명의 시민과 공직자가 자발적으로 동참했으며, 참여자들에게는 온누리상품권·영화관람권 등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돼 감사를 표했다.

시는 이번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 내

학교·공공기관 등과 꾸준히 협력해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인 홍보 활동으로 시민 누구나 쉽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중이다.

관계자는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어 꾸준한 헌혈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고귀한 참여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한 헌혈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헌혈 전날 과음이나 과로는 피하고,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의료진과 사전 상담을 거쳐야 참여할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승강기 안전 이용문화 확산

군산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군산소방서, 관리업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미장초등학교 학생들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승강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13일 진행됐던 훈련은 승강기 사고 및 고장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와 초기 대응능력을 제고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승강기 안전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이번 훈련은 승강기가 1층에서 2층으로 이동 중 정전으로 인

해 승객들이 승강기 내부에 갇히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으며 △승객 구조요청 △관리주체 초기대응 △119 구조대와 유리관리업체 현장 출동 △승객 구조 순서와 동일하게 진행됐다.

정권우 안전총괄과장은 “승강기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대처 방안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훈련이 승강기 안전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완주군, 만경강 발원샘 생태공원 준공

동상면 밤티마을 26억 투입 조성 리운지·탐방로·숲속놀이터 갖춰 생태관광 거점·녹색쉼터 확대

완주군이 만경강의 시작점인 동상면 사봉리 밤티마을에 '만경강 발원샘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15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원 조성으로 만경강의 생태적 가치와 발원지의 상징성을 부각하고, 완주군을 대표하는 생태관광 명소로의 도약을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관계기관 관계자, 마을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업 추진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유희태 군수의 기념사, 내빈 축사, 테이프 커팅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새롭게 조성된 발원샘 생태공원은 총 26억 원(도비 13억 원, 군비 1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웰컴-밤샘라운지(주차장, 화장실, 야외무대 등), 황토(습식)포장 탐방로(1.2km), 숲속놀이터와 꽃밭,

전통정자 쉼터 등이 조성됐다.

이날 준공식에서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과 정종수 동상면 밤티마을 이장이 유희태 군수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준공은 만경강 발원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세대 잇는 ‘20주년’ 순창장류축제, 내일 개막

고추장민속마을·발효테마파크서 국화기름·불꽃놀이 가을 정취 더해

전통발효의 고장 순창에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제20회 순창장류축제'가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과 발효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이번 축제는 '순창의 빛깔, 세계를 물들이다'를 주제로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 먹거리로 꾸며져 순창의 맛과 멋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축제장에서는 '황금메주를 찾아라', '성년을 맞은 너와 나', '장주왕을 찾아라', '고추 찌지 빨리 따기' 등 흥미로운

체험형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20주년을 기념한 불꽃놀이와 '캐지! 티니핑'공연, 청소년 영화제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된다.

또한, 축제장 내에는 고추장불고기 등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는 먹거리 장터와 지역 농부들이 직접 운영하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가 운영되며, 다회용기 사용과 쓰레기 분리수거 강화를 통해 친환경 축제로의 전환에도 힘썼다.

아울러, 군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11개 읍면을 연결하는 순환 셔틀버스가 확대 운행되고, 공설운동장 전용 셔틀버스도 별도로 운영된다. 경찰, 소방, 가스, 전기 등 유관기관의 합동 안

전점검도 마쳤으며, 축제 기간 동안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해 방문객의 안전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발효테마파크와 팜이공원, 민속마을 일원에는 국화 3만여 본이 배치되어 가을 정취를 더하고, 하트형 조형물과 장독대 포토존 등 국화 포토가든이 조성되어 관람객들에게 인생사진 명소로 인기를 끌 전망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올해 순창장류 축제는 20주년을 맞이하여 세대를 잇는 참여형 축제로 준비했다”면서 “순창의 깊은 장맛과 발효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순창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전북도교육청, 제2야구장 조성 협력

학생 야구 활성 업무협약 체결 울소리야구장 사용료 감면 등

완주군과 전북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체육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학교 스포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14일 양 기관은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체육 여건 속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체육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스포츠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완주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유정기 전북도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 김철웅 완주군 야구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학생 야구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완주군 봉동읍 울소리 야구장 사용 및 사용료 감면, 2027년 완공 예정인 제2야구장 조성 협력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제2야구장 조성 시 △경기장 베이스 위치 조정 △임시외야 펜스 설치 등 성인과 유소년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겸용구장 조성 방안



완주군과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4일 학교 스포츠 기반 강화 및 제2야구장 조성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사진=완주군>

이 담겼으며, 전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경기 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 지원을 약속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야구를 즐기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체육문화가 함께 발전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이 학생 야구 활성화와 지역 스포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완주군과 전북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생 체육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스포츠 저변을 넓히기 위한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 원푸드 페스티벌, 드론제전과 함께 즐긴다

백향과 디저트 현장 시식·판매 가족 체험형 쿠키 등 프로그램 다양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남원국제드론제전을 맞이해 관광객들과 소비자들에게 지역 특산물 '백향과(Passion Fruit)'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One Food Festival' 축제를 오늘부터 19일까지 4일간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입구 주차장에서 개최한다.

행사는 남원시가 핵심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원푸드 전시와 홍보존, 체험존, 먹거리 판매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행사 마켓존에서는 백향과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 신제품을 시식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표 제품으로는 △백향과맛 예사비, △백향과 뷰티 젤리, △백향과 파이, △백향과 샌드 등이 있으며, 방문객들은 현장에서 직접 맛보며 제품의 매력을 체험할



남원농업기술센터는 남원드론제전을 맞이해 지역특산물 백향과를 알리기 위한 원푸드 페스티벌을 오늘부터 개최한다. <사진=남원시>

수 있다.

또한, 체험존은 백향과를 활용한 요리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백향과 쿠키클래스'와 '남원 농특산물 활용 게임'이 운영되며, 참여형 행사로 꾸며진다.

원푸드 페스티벌은 남원시가 지역적

특성과 장점을 결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특산물의 가치 향상, 지속가능한 지역 상생 모델 제시를 목표로 한다. 국제드론제전과의 연계를 통해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를 풍성하게 마련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성과 ‘우수’

‘정주형 글로벌 인재양성’ 호평 국비 5억 추가 확보

완주군이 교육부에서 추진한 2024년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90개 지자체(광역시 7개, 기초 83개) 대상 △지자체-교육청 협력 거버넌스 구축 △특별교부금 집행관리 △지역교육 혁신 의지 △성과관리 체계 △우수사례 확산 등 5개 영역, 13개 세부지표에 따라 교육부 평가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군은 전북도 및 5개 시·군과 함께 3유형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정주형 글로벌 인재양성’ 모델이 전국 확산이 필요한 우수사례로 높게 평가받았다.

군은 지난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2026년까지 최대 11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고 있다.

‘교육혁신의 바람을 일으키다’를 비전으로 내세워 틈새 없는 돌봄환경 조성(365돌봄센터 구축) △공교육 혁신을 통한 맞춤형 인재양성 △지역 주력산업 연계 취·창업 지원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행복한 교육도시 조성 등 4대 전략을 추진 중이다.

특히 완주군은 완주교육지원청, 우석대학교 등과 협력해 지역 고교를 수소에너지 산업과 연계한 혁신형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등 공교육 혁신을 적극 실천해왔다.

그 결과, 수소에너지고등학교는 첫 신입생 모집에서 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올해 5월에는 교육부 지정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선정돼 향후 5년간 국비 45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해지며, 완주 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가을 3대 축제’ 누리시민 대상 스탬프 투어

경품 행사 지역상권 활성화 기대

남원시가 남원누리시민 인지도 제고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늘부터 19일까지 개최하는 국제드론제전, 흥부제, 국가유산아행 등 가을 3대 축제 연계 관의 누리시민 대상으로 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마련했다.

스탬프 투어는 축제 기간 남원누리시민이 3대 축제 현장을 방문해 스탬프 인증을 모두 완료하는 방식으로, 기존 가임자와 현장 신규 가임자 모두 참여 가능하다. 스탬프 완주자 3천 여명에게 행사장에서 사용 가능한 원푸드 등 농산품 이용권을 제공한다.

스탬프 카드 및 이용권은 국제드론제전과 국가유산 아행 내 남원누리시민 부스에서 수령하면 된다.

특히 시는 스탬프 완주자 중 숙박 인증 참여자에게는 농산품 이용권을 추가 지급해 체류형 축제로 만들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원누리시민 15만명 돌파 기념 이벤트로 n번째 완주자 20명에게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명지가 속소 30% 모바일 할인쿠폰’ 및 농산품 이용권을 추가 증정해 재방문을 유도한다. 명지각은 지난 6월 개관한 지역특화친환경 한옥 호텔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 제2농산물가공센터, 홍삼음료 HACCP 획득

인삼·홍삼음료 취득 안전성 입증

순창군 제2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인삼·홍삼음료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을 취득했다.

HACCP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식품의 생산·가공·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제2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원료 입고부터 제조·가공·유통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인삼·홍삼음료 HACCP 인증 획득을 통해 순창군 홍삼제품의 위생과



순창군 제2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인삼·홍삼음료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을 취득했다. <사진=순창군>

품질 안전성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인삼연구회원 정 대표는 “이번 HACCP 인증이 관내 인삼 재배 농가의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도움이 되고, 순창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콩 자동차 선별장

20일부터 본격 운영

순창군이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과 콩 품질 향상을 위해 구림면 사곡에 위치한 콩 자동차 선별장을 오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앞두고 센터는 선별장에 대한 시설 점검과 수리 등을 모두 마무리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했다.

이번 콩 자동차 선별장은 특히 농촌의 지속적인 인력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0kg 포대 작업은 물론, 톤백(1톤 단위 대형 포장) 작업도 가능하여 콩 수확 후 선별에 드는 과도한 노동력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직접 선별장을 이용한 한 농가는 “콩 수확 후 선별과 포대 작업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자동차 선별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돼 노동 부담이 크게 줄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선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이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순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063-650-5142)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시설관리공단

‘창립 1주년’ 혁신 다짐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수)이 15일 고산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에서 창립 1주년 기념식을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군 유관부서 관계자, 공단 임직원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해 공단의 첫발을 함께 축하했다.

기념식은 공단 1년의 발자취를 담은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군수 및 이사장 축사, 유공 직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군민 가까이, 군민 중심의 공단’으로 성장해온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의 비전과 미래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공영마을버스 △고산자연휴양림 △공설장사시설 △공영주차장 △종량제봉투관리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해왔다.

특히 출범 초기의 조직 안정화, 근무체계 정립, 대민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혁신적인 노력을 통해 ‘군민 가까이, 군민 중심의 공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완주군과 공단이 함께 협력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자”고 격려했다.

이희수 이사장은 “공단의 1년은 임직원 모두의 헌신과 협력으로 만들어낸 값진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창의혁신과 소통, 청렴과 안전을 핵심 가치로 삼아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의료원

응급실 사후관리사업 신규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제3차 공모 심사 결과 신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의 자살 제시도를 예방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 내원 시점부터 적극적인 개입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수행기관은 자살 시도로 내원하는 환자에게 응급처치 이외에 초기상담 및 정신과적 평가와 병원 기반단기 사례관리를 제공한 후, 지역·권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협약 등 사업에 대한 준비를 마친 남원의료원 오진규 원장은 “지역책임 의료기관으로서 도민의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사업에 참여하게 됐으며, 국가 정책에 발맞춰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남원=정하복기자



완주군 노인돌봄 종사자, '경전에서 하루'로 재충전

완주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인 용진노인복지센터가 종사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한 심리지원 역량강화 교육 '경전에서 하루'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완주군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 위탁사업 중 하나인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을 연계해 꽃감 말이 체험, 치즈 스프레드 체험으로 구성됐다.

종사자들은 직접 전통 간식을 만들며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주현 센터장은 "종사자들의 심리적 건강을 지지하고, 정서적 회복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건강한 복지 현장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용진노인복지센터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외에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등을 운영하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운봉읍 준항마을 이장 소대권, 백미 10kg 37포 기부

남원시 운봉읍 준항마을 이장 소대권은 운봉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햅쌀 10kg 37포(13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

소대권 이장은 9년 동안 이장직을 맡으며 지역에 봉사하고 있으며,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매년 운봉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 식사를 위한 햅쌀과 식자재를 꾸준히 제공하면서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소대권 이장은 "경로당을 찾는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걱정 없이 편안하게 경로당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올해도 쌀을 기부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운봉읍장은 "매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위해 기꺼이 쌀을 기부해주신 소대권 이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읍에서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준비하겠습니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자립준비청년에 냉동식품 지원

레드크로스아너스클럽 후원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이선홍)는 도내 자립준비청년 60명에게 냉동식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액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RCHC)의 후원으로 추진됐으며 보호종료 후 홀로 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번 지원 물품은 삼계탕, 치킨

너겟, 닭꼬치 등 간편 조리가 가능한 7만원 상당의 냉동식품으로 구성됐다.

전북지사는 올해 여름 무더위 속에서는 선풍기와 제습기를 지원했으며 지난달에는 환절기를 대비한 건강기능식품을 전달하는 등 계절과 생활환경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오는 12월까지 적십자 봉사를 통해 생활용품과 식품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대한노인회 부산 동래구지회, 남원시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남원 문화탐방 진행

대한노인회 부산 동래구지회 회장단 및 경로당 회장단 150여 명은 15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를 방문해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지회장 곽철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문화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노인이 행복한 세상, '어려운 노인'을 지향하는 동래구지회가 경로당 회장단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지회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래구지회 대표단은 이날 남원

시지회를 방문해 상호 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앞으로 노인 복지 증진과 지역 노인회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지원하는 응원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지역 현안에도 힘을 보탰다.

회원들은 남원의 대표 음식인 추어탕으로 오찬을 나눈 뒤, 광한루원과 운봉 허브밸리를 탐방하며 지역 문화와 자연을 체험했다. 또, 가을 정취 속에서 교류와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화합을 다졌다.

/남원=정하복 기자



대한노인회 부산 동래구지회 회장단 및 경로당 회장단 150여 명은 15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를 방문해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 인후초, 폐기물처리시설 현장 견학

전주시는 15일 자원순환교육의 일환으로 인후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폐기물처리시설 현장 견학 프로그램은 지난달 18일 시작돼 매주 수요일 또는 목요일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차례 진행됐다.

이날 참여한 학생들은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와 종합리사이클링타운, 매립장을 차례로 방문

해 직접 시설을 둘러보고, 내가 버린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했다.

학생들은 견학 현장에서 냄새와 소리 등 다양한 감각을 통해 실제 시설의 생생한 분위기를 느끼는 것은 물론, 전주시니어클럽 소속 환경강사들의 친절한 설명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정혜민 기자



(주)휴먼스타, 부안군에 장학금 200만원 기탁

위탁교육 전문기관 (주)휴먼스타(대표 박은선)는 지난 13일 부안군 근능인재육성재단을 방문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휴먼스타는 다양한 위탁교육 및 기업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맞춤형 코칭과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는 조직역량 개발 전문 교육기관으로 주로 직업에 임하는 자세, 리더십코칭, 운동선수 심리코칭, 힐링제안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를 제공한다. 박은선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부안의 청소년들이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익현 재단 이사장은 "기업과 지역이 함께하는 나눔의 선순환 구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재단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새마을지도자 김제시 부랑면 제주시 오라동 협의회, 상호 기부

김제시 부랑면 행정복지센터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장수용)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자매결연지인 제주시 오라동을 방문해 상호 교류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2년 9월 체결된 자매결연 협약 이후 이어온 교류의 일환으로, 양 지역 새마을지도자 간 우의를 다지고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랑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8명은 오라동주민센터를 찾아 오라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고무성)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특산물 판촉 및 홍보활동을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기부(부랑면↔오라동 각 100만 원)를 진행하며 지역사랑 실천과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또한 부랑면에서 직접 수확한 햅쌀 5kg 100포를 오라동에 전달하며, 풍요의 계절에 이웃 지역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은봉기 기자



(사)군산시장애인연합회, 밀반찬 지원에 100만원 기탁

(사)군산시장애인연합회가 어려운 이웃의 밀반찬 지원을 위해 15일 흥남동행정복지센터(동장 이연숙)에 총 100만 원을 기탁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특히 이번 기탁금은 매달 받는 (사)군산시장애인연합회 회장 직책보조비를 모아 기부해 그 의미가 깊다.

성금을 기탁한 박경래 회장은 "직책보조비를 실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고 싶었다"라며 "나눔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의 표현으로, 장애를 가진 우리도 지역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흥남동행정복지센터 동장 이연숙은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리며, 밀반찬 봉사단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신속히 전달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우리의 강이 깨끗해야 우리 아이들도 건강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강물에 무관심할때, 강물은 소리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강물의 비병에 귀 기울이고 행동할때, 비로소 맑은 강과 건강한 미래를 다음세대에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JBT 전북타임스연중캠페인

〈一事一言〉



또 기각, 또 박정호 판사…사법 정의는 어디에 있나

김관춘
논설위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조희대 사법부’의 손길이 닿은 곳에서는 정의가 변변히 꺾이고, 상식이 비틀린다. 이번에도 영장 기각의 주인공은 ‘조희대 키즈’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부장판사였다. 내란 특검이 제시한 방대한 증거와 정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부족하다”며 불구속 수사를 택했다. 법의 이름을 빌린 면죄부였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불법 비상계엄의 핵심 공모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국헌문란 행위의 정점에서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내란의 후속조치를 지휘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계엄령 직후 그는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 지시했고, 교정본부에는 정치인 수용 공간 확보를 명했다.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켰다는 증거도 나왔다. 특검은 그의 지시가 불법 계엄의 실행을 뒷받침한 국헌문란 행위라며 구속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또다시 ‘불구속 원칙’을 들며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단순히 한 번의 영장 기각이 아니다. 이 결정은 지난 수개월 동안 반복된 “조희대 사법부의 일관된 행태”와 맥락을 같이한다.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집사 게이트’ 영장 3건이 박정호 판사에 의해 줄줄이 기각된 것도 불과 한

달 전이었다. 리박스쿨 순효숙 대사의 구속영장 역시 그가 기각했다. 반면 김건희 측에 미술품을 전달한 김상민 전 검사는 영장을 발부받았다. 선택적 정의, 표적성 판단. 법관의 중립은 온데간데없다.

더 큰 문제는 이 판사들의 인사 배경이다. 박정호 부장판사를 비롯해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4명 중 3명이 수원지법 출신이다. 그 수원지법은 이재명 대통령 시절부터 ‘편향 판결’로 악명 높은 곳이다. 그런 판사들이 내란 사건의 영장을 전담하게 됐다는 것은 우연일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수사 방해용 인사’를 의도적으로 배치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사법부의 인사가 정권의 방패로 작동하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은 무너진다.

박정호 판사는 과거에도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 그는 수원지법 재직 시절, 당시 이재명 대표 부인인 김혜경 여사에게 10만원 남짓한 식사제공 건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 같은 시기 민주당 이상식 의원에게는 당선무효형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이런 판결 패턴을 보면 ‘우연’이라기엔 너무 일관된다. 보수권 인사에게는 관대하고, 진보진영에는 가혹하다.

이제 그 칼날이 내란 수사를 향해 돌아섰다. 박성재 전 장관의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는 계엄 발동 두 시간 전,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호출받아 윤석열·

김용현으로부터 계엄 관련 설명을 들었고, 이를 메모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헌문란 목적’을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그는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실행에 가담했다. 그가 교정본부로부터 ‘구치소 수용 현황 문건’을 받고 삭제한 정황은 증거인멸의 전행이다. 특검은 이런 행위를 근거로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또다시 눈을 감았다.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인가. 이렇게 하면 사법부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는가.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대법원장은 대답을 좀 해보라. 특검은 철저한 보강 수사로 이들 모두를 구속해야 한다. 국무위원으로서 엄연히 책임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자들, 이들은 이미 운명공동체로 자유로이 두면 입을 맞춰 어떻게든 빠져나갈 공리를 모색할 것이다.

온 국민들은 특검이 법정에서 상영한 CCTV 영상을 통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의 비릿한 웃음을 보았다. 곧 군대가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민들을 모처로 끌고 가고, 단전·단수로 혼란할 상황을 상상하니 절로 웃음이 나고 재미가 지났다.

사법부가 국민의 법감정에서 이토록 멀어진 적이 있었던가. 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의 사법부는 권력의 불법을 방조하고, 내란 공범들을 지켜

내는 방패막이가 되어버렸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 ‘불구속 원칙’은 이미 정의의 알리바이가 됐다. 영장 기각 납발은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체계적 의도다. 이쯤 되면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희대의 대한민국인가, 국민의 대한민국인가.”

법원은 스스로를 ‘독립된 제3권’이라 말하지만, 그 독립은 지금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의 분리’로 변질됐다. 국민은 법정의 주인이 아니라, 재판의 객체로 전락했다. 법관의 펜끝이 정의를 기록하는 대신 불의의 방패로 쓰이는 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이름뿐인 허울에 불과하다. 사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헌정파괴와 내란의 공범을 비호하는 자에게는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조희대 사법부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내란의 공범을 감싸며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뒤늦게라도 사법 정의를 회복할 것인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정의는 멈췄고, 분노는 이제 법원 문턱을 넘어 거리로 번지고 있다.

전북형 공공배달앱으로 민생경제 활로 찾자

전북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북의 자영업자 수는 불과 1년 새 10.2% 감소했고, 특히 숙박·음식업의 폐업은 전년 대비 26%나 늘었다. 전주와 도내 시군 곳곳에 붙은 ‘임대’ 안내문은 단순한 종이 쪽지가 아니다. 그것은 지역 골목경제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이며, 생업을 지키지 못한 이웃들의 절규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독점적 플랫폼 기업 ‘배달의민족’은 수수료와 광고비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어깨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2024년 배민은 4조3천억이 넘는 매출과 6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두었다. 불과 1년 만에 매출이 1조 가까이 폭증했으나, 이익의 원천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묻지 않아도 알 일이다. 주문이 늘어도 자영업자는 빚만 늘고 소비자는 계속 오르는 배달비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 이것이 골목경제의 민낯이자 불공정 시장의 현실이다.

이에 맞서 지역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배민규제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 광고비 전가 금지, 임점업체의 단체 협의권 보장 등은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미 공정거래법과 소상공인 보호법 등 현행 법률로도 제도적 뒷받침이 가능한 만큼, 국회와 정부는 하루빨리 입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견제하지 못한다면 지역경제의 화생은 요원하다.

동시에 공공배달앱의 도입은 중요한 대안이다. 경기도 ‘배달특급’, 대구 ‘대구로’, 광주 ‘위대프오’, 전남 ‘막깨비’ 등 이

미 여러 지역에서 성공적 사례를 증명하고 있다. 수수료 0~2%, 광고비 없는 구조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지역화폐 결제와 연계해 소비 순환을 지역 안으로 묶어둔다. 공공이 주도하는 배달앱은 단순히 민간 기업과의 경쟁을 넘어 시장 불공정을 바로잡고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사회적 공공재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전북에는 아직 광역 차원의 공공배달앱이 없다. 전주와 군산이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시도했으나 인지도 부족과 예산 한계 탓에 파급력이 미미했다. 이제는 전북도가 직접 나서야 한다. 개별 시군의 시도를 하나로 묶고 도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만 전북 경제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

물론 공공배달앱이 하루아침에 거대 독과점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그러나 도와 지자체, 정치와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제도를 개선하고 대안을 키워나갈 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다시 숨을 고를 수 있다. 더불어 소비자에게도 합리적인 선택지가 제공된다면 지역경제는 상생의 선순환을 되찾을 수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서 있는 골목에서부터 민생회복이 시작돼야 한다.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 구축과 배민규제법 제정은 단순한 제도 개혁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생존 전략이다. 독점 플랫폼의 탐욕으로부터 자영업자와 골목경제를 지켜내는 일에 모든 모두가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로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만 침체된 전북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길이다.

문화재열전



개암사응진전16나한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불교조각, 석조, 나한상
- 지정일 - 2000년 3월 31일
- 시대 - 조선시대
- 소재지- 부안군 상서면 개암로 248 (감교리)

▲오늘의시

준비 없는 희망 / 박노해

준비없는 희망이 있습니다
처절한 정진으로 자기를 갈고 닦아
저 거대한 세력을 기어코 뛰어넘을
진정한 자기 실력을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없는 준비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해 가는데

세상과 자기를 머릿속에 고정시켜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시인 약력 : 1957년 전남 함평 출생. 16세에 상경해 주경야독으로 선린상고를 졸업했다. 1983년 ‘시와 경제’에 ‘시대의 꿈’이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84년 시집 ‘노동의 새벽’을 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1백만부 이상 팔려 밀리언 셀러가 됐다. 1991년 안기부에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98년 DJ 정부 때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복권되었으나 국가보상금을 거부했다. 옥중 에세이 ‘사람만이 희망이다’ 등 다수의 작품을 출간했다.

전북타임스신문은 독자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 ◇광고문의 282-9601
- ◇기사제보 282-9600
- ◇신문구독 283-8800





군산예술의전당, 10월 풍성한 공연으로 시민과 만나다



창작음악극·발레·클래식 등 세대별 맞춤 문화공연 마련



가을의 정취가 무르익는 10월, 군산예술의전당이 예술의 감동을 전하는 풍성한 기획공연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 '군산 설화, 어린이 창작음악극 - 은파, 세바우 전설'

시작은 군산시립교향악단 제79회 특별기획연주회 '군산 설화, 어린이 창작음악극 - 은파, 세바우 전설'이다. 군산의 대표 설화 '세바우 전설'을 음악과 이야기로 재해석한 이번 작품은 16일 오후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막을 올린다. 특히 △이명근 상임지휘자의 박진감 넘치는 지휘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 △따뜻한 음색으로 사랑받는 소프라노 구은경의 해설 △시립합창단 단원들의 생생한 연기가 어우러진 환상의 조합이 작품을 더욱 쉽고 친근하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 시민과 더욱 가까이...세대를 아우르는 야외콘서트 '라떼팝 콘서트'

가을이 깊어가는 26일 오후 7시 30분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야외 광장 콘서트 '라떼팝 콘서트'가 열린다.

공연을 개최하는 군산시립예술단은 군산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공연장도 시민들이 가장 즐겨찾는 은파유원지 물빛다리 무대로 정했다. 레퍼토리 역시 '라떼는 말이야'라는 주제답게 7080세대를 위한 추억의 음악을 중심으로 꾸몄다.

군산시립예술단은 쿼크 아바의 베스트 콜렉션 및 이문세·변진섭 등 한 시대를 풍미한 아티스트들의 명곡이 무대 위에서 새롭게 재해석해 세대를 초월한 감성의 무대를 선사할 계획이다.



■ 낭만의 도시로 떠나는 음악여행

초겨울의 입구로 들어가는 10월의 끝자락인 29일 오후 7시 30분에는 음악으로 떠나는 여행, '트래블 콘서트'가 음악의 도시 비엔나로 관객을 안내한다.

군산예술의전당의 대표 기획 프로그램인 이번 공연은 첼리스트 채훈선, 바이올리니스트 임지희가 함께 하며 피아니스트이자 해설자인 정환호가 여행 가이드로 관객과 연주자·무대를 이어줄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 어린이와 어른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공연 '빛처럼 마법처럼'과 명작 발레 '헨젤과 그레텔'

아이와 어른이 함께 즐기는 공연도 연달아 관객을 기다린다. 빛과 마술 그리고 과학이 어우러진 체험형 공연 '빛처럼 마법처럼'과 그림 형제의 동화를 새롭게 각색한 명작 발레 '헨젤과 그레텔'이 주인공들이다.

18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두 차례 선보이는 '빛처럼 마법처럼'은 환상적인 빛의 움직임 속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무대에 참여하고, 눈앞에서 펼쳐지는 빛 쇼와 마술을 통해 예술과 과학의 융합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어 관객을 찾아오는 와이즈 발레단의 '헨젤과 그레텔'은 그림형제의 동화를 새롭게 각색한 명작 발레다. 공연을 선보이는 와이즈발레단은 2005년 창단 이후 연간 100회 이상의 국내외 공연을 이어오며 대한민국문화예술상(대통령상) 등 다수의 수상을 통해 예술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온가족 공연 '헨젤과 그레텔'은 다가오는 25일 오후 3시,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관객을 맞는다.

제36회 백제가요 정음사 문화제

2025. 10. 25. (토) ~ 10. 26. (일) | 2일간 정음사 문화공원 일원

25일 (토)	25일 (토)	26일 (일)	25일 (토) ~ 26일 (일)
09:00 채수익례	17:30 개막식 설운도, 김다현	18:00 정음사가요제 송가인, 김미주, 유소라 (2024 수상자)	10:00 ~ 20:00 제18회 평생학습축제

설운도

김다현

송가인

김미주

주최·주관 정음사
사)정음사문화제 제전위원회
문의_ (사)정음사문화제 제전위원회 T.063)532-8880

I 2025년도 정음사 정음사문화제행사 보조금으로 제작